



‘돌봄’과 ‘성장’의 균형을 갖춘 도시, 대전의 가능성을 제시하다

#대전 #여성친화도시 #2차_기본계획 #돌봄 #성장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대전은 올해 말,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친화도시 방향, 추진목표 및 과제, 추진체계 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용 중 일부를 이번 호에 게재한다.

다함께 ‘돌봄’과 ‘성장’을 실현하는 대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돌봄’과 ‘성장’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알고 나눌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아 대전의 제2차 여성친화도시 비전을 제시하였고,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목표, 10대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10대 정책과제는 목표별로 인프라 구축과 문화 조성을 담고 있다.

대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비전·목표·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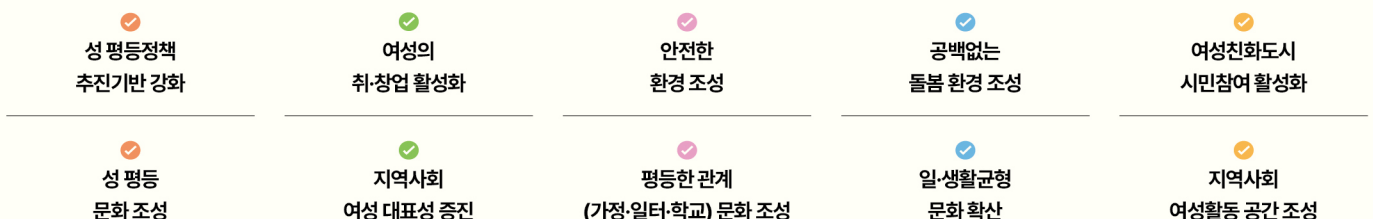
비전



목표



정책 과제



‘조사’에서 ‘발굴’까지, 한눈에 보는 연구

대전시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크게 5단계 과정을 거쳤다. 여성친화도시 개념과 추진체계, 국·내외 사례를 탐색했으며, 대전형 여성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전의 인구·사회학적 환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을 공시 통계자료,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했다. 또한 시민 체감형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대전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관심도, 정책요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정책 수요를 분석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점검하기 위해 ① 자치구 담당자, ②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③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집단심층좌담회(FGI)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제1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0~2024)과 5개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를 분석했다. 과정별 분석 결과를 연계·검토하여 대전광역시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대전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 과정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컨트론타워로서
역할해야**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는 크게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조성 계획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민참여단, 컨설턴트와 유기적인 교류 및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대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화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대전시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광역 단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요구된다. 여성친화도시 제도 운영의 컨트론타워로서 광역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추진체계 모델(안)



여성친화도시 시민인식조사

‘돌봄’과 ‘경제참여’에 대한 대전시민의 생각, 중요도 높지만 조성 미흡해

대전시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비전은 시민 인식조사에서 사업 중요도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거주 환경 내 조성 정도는 낮게 평가한 ‘돌봄’과 ‘여성의 경제·사회참여’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따른 환경 조성 정도에 대해 ‘양성평등 가치확산(3.11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은 ‘지역사회안전(3.08점)’, ‘지역사회활동&공동체(3.00점)’, ‘돌봄환경(2.98점)’이었다.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경제사회참여(2.84점)’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돌봄환경(3.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경제사회참여(3.26점)’, ‘지역사회 활동&공동체(3.23점)’, ‘지역사회안전(3.23점)’, ‘양성평등가치 확산(3.22점)’ 순이다.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돌봄환경과 여성의 경제·사회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동네에서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전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시민인식조사 : 조성 정도와 중요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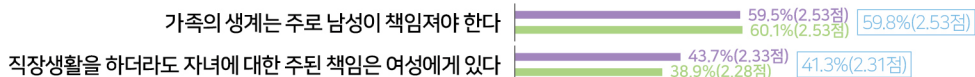
	조성 정도					중요도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양성평등 가치확산 3.11	지역사회 안전 3.08	지역사회 활동·공동체 3.00	돌봄환경 2.98	경제사회 참여 2.84	돌봄환경 3.29	경제사회 참여 3.26	지역사회 안전 3.23	지역사회 활동·공동체 3.23	양성평등 가치확산 3.22
여성	양성평등 가치확산 3.10	지역사회 안전 3.09	지역사회 활동·공동체 3.01	돌봄환경 3.00	경제사회 참여 2.84	돌봄환경 3.30	경제사회 참여 3.27	지역사회 안전 3.25	지역사회 활동·공동체 3.24	양성평등 가치확산 3.23
남성	양성평등 가치확산 3.12	지역사회 안전 3.07	지역사회 활동·공동체 3.00	돌봄환경 2.96	경제사회 참여 2.83	돌봄환경 3.27	경제사회 참여 3.24	지역사회 활동·공동체 3.23	양성평등 가치확산 3.22	지역사회 안전 3.21
연령별로 살펴본 ‘돌봄환경’&‘경제사회 참여’										
돌봄환경	2.95	가장 낮아 2.95	3.00	3.00	2.98	3.28	3.28	3.34	가장 높아 3.29	3.25
경제사회 참여	2.80	2.79	가장 낮아 2.88	2.84	2.85	3.25	3.29	3.30	가장 높아 3.25	3.2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전시민 대상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설문 결과,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문항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였고, 성별 차이(4.8%p)도 가장 컸다. 변화하는 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에서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85.3%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85.6%)이 여성(85.1%)보다 높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81.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성별로 보면 여성(82.5%)이 남성(80.4%)보다 높다.

성별 고정관념

□: 전체 ■: 여성 ■: 남성



변화하는 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



·비율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의 비율을 합해 산출함

·점수는 4점 척도로 평균한 값임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는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문항만 제시함

·본 연구의 대전광역시 시민(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임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광역시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